



모죽지랑가 | 독오 동동 | 작자 미상

(가)

㉠간 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구나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눈 깜박할 사이에

만나 뵈을 기회를 지으리이다

㉤남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에

다북쪽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인들 있으리이까

- 양주동 해석

- 독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1~2] 죽지랑과 함께 했던 과거를 그리워함. [3~4] 죽지랑의 생전의 모습을 회상함. [5~6] 죽지랑과 만나기를 기원함. [7~8] 죽지랑과의 만남을 기원함.

(나)

정월 넷물은 아으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

이월 보름에 아으 높이 켜 등불 같구나

㉥만인 비취실 모습이지도다

아으 동동다리

<이월령>

▶ 임의 인품에 대한 찬양

㉦삼월 지나며 핀 아으 만춘(滿春)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너 나셨도다

아으 동동다리

<삼월령>

▶ 임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

사월 아니 있어 아으 오셨구나 피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錄事)¹⁾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십니까

아으 동동다리

<사월령>

▶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오월 오일에 아으 수릿날²⁾ 아침 약(藥)은

즈믄 해를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오월령>

▶ 임의 장수에 대한 기원

유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밧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잡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령>

▶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비관

칠월 보름에 아으 백종(百種)³⁾ 벌여 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어 원(願)을 비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칠월령>

▶ 임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염원

팔월 보름은 아으 가배(嘉俳)⁴⁾날이지만

임을 모셔 지내야만 오늘날이 가배로구나

아으 동동다리

<팔월령>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임이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

[어휘 풀이]

1) 녹사 - 고려시대 벼슬 이름. 2) 수릿날 - 단옷날. 3) 백종 - '백종날'을 달리 이르는 말.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다. 4) 가배 - 한가위.



핵심점점



<모죽지랑가>

☑ 시구풀이

• 간 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구나

- '간 봄(지나간 봄)'은 '죽지랑이 살아 있을 때' 또는 '죽지랑과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죽지랑을 그리운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죽음을 울면서 슬퍼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 작가가 죽지랑의 인품에 대해 회상하고 있는 부분으로, 늙음에 대한 한탄으로 보아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 **다복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인들 있으리이까**
- ‘다복쑥 우거진 마을’은 ‘저 세상’ 또는 ‘험하고 삭막한 이승’을 의미한다.

특징

- 갈래 : 8구체 향가
- 성격: 추모적, 예찬적, 서정적
- 화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한 서정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표현방식

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대상전개	화자는 죽지랑과 함께 했던 라거를 추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죽지랑과 함께 지내던 ‘안 봄’을 그리워하며, 죽지랑과 죽고 없는 현재의 ‘시름’을 말하고,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 위해 ‘너를 길’을 노래하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죽지랑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	‘지나간 봄’, ‘다복쑥 마을’과 같은 비유적 표현에는 화자의 무상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구 풀이

- 정월 넷물은 **아으 열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 정월의 넷물이 열었다가 녹았다가 한다는 것으로, 얼어붙은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임에 의해 녹게 하고 싶다는 의미와 마음을 녹여 줄 사람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진 중의적 또는 우의적 표현이다. 자연 현상과 대비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 **아으 동동(動動)다리**
- 고려가요의 대표적 특징인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동동’은 북소리, ‘다리’는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보인다.
- **노피 현 燈(등)스불 다호라.**
- ‘노피 현 등(燈)스불’은 ‘연등(燃燈)’을 가리키며, 이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연등 놀이는 정월 보름에 행하던 것을 고려 현종

(縣宗) 때에 2월 보름으로 고쳤으므로, 2월령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작품이 현종(縣宗) 이후의 것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연등절에 높이 켜 놓은 등불처럼 임의 인격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로 훌륭하다는 뜻으로 임의 높은 인격을 예찬하고 있다.
- **삼월 지나며 핀 아으 만춘(滿春)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도다**
- 늦봄에 핀 진달래꽃과 같이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 **사월 아니 잊어 아으 오셨구나 꾀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錄事)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십니까**
- 꾀꼬리와 녹사님의 대조: 4월이 되어 돌아온 꾀꼬리와 달리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녹사’는 고려 시대 관직의 하나로, 임의 신분과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오월 오일에 아으 수릿날 아침 약(藥)은 즈른 해를 길이 사설 약이라 바치옵니다**
- 단옷날 아침에 익모초즙을 마시면 병이 없어진다는 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곁에 없는 임을 그리워하며 약을 바치고 임의 장수를 비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나타나 있다.
- **칠월 보름에 아으 백종(百種) 벌여 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어 원(願)을 비옵니다**
- 온갖 음식과 과일을 차려 놓고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과 함께 살고 싶다는 애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팔월 보름은 아으 가배(嘉俳) 날이지만 임을 모셔 지내야만 오늘날이 가배로구나**
- 8월 보름은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위로, 조상에게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가장 즐거운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한가위라고 말하며, 임을 그리는 고독과 그리움을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특징

- 갈래 : 고려가요
- 성격 : 민요적, 송축적, 연가적, 서정적, 비유적, 상징적
- 후렴구 사용으로 흥취를 고조시킴
- 자연물에 임과 화자를 비유 · 대조함
- 분절체 형식으로 서사인 1연과 본사인 12개 연으로 구성
- 세시풍속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읊음 (월령체 형식)

✓ 동동의 형식적 특징

물격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음보의 물격	
연장체	하나의 작품이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지는 시가의 한 양식으로, 고려가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 이 작품도 서사와 12개 연으로 구성된 본사, 총 13연으로 구성된 연장체의 성격을 띤다.	
후렴구	형식상 기능	• 운율의 형성 • 형식적 즐거움 (흥취 고조) • 연(聯)이나 장(章)을 끝
	의미상 기능	• 의미의 전환 • 다양하게 전개된 사상을 통합

✓ 각 월령에 나오는 세시풍속

2월	연등제	정월 보름에 등을 켜고 불을 비는 풍속. 고려 현종 조에 2월 보름으로 바뀌었다.
5월	단오	(음력 5월 5일) 여자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이는 모두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수리취떡과 쑥떡 등을 먹고, 그네뛰기·씨름·탈춤·사자춤·가면극 등을 즐겼다.
6월	유두	(음력 6월 15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새로 나온 라일라 국수, 떡 등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유두면(국수의 일종)·편수(만두의 일종) 등을 먹었다.
7월	백중	(음력 7월 15일) 백제가 모여 온갖 음식을 갖추어 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았다. 승려들은 이날 각 사찰에서 재를 불렀다.
8월	한가위	(음력 8월 15일) 가을에 거둔 풍성한 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9월	중야절	(음력 9월 9일) 이날 서양의 선비들은 교외로 나가서 뽕국(楓菊)놀이를 하는데,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부쳐 먹었다.

✓ 임과 화자를 비유한 소재

	비유한 소재와 의미	대조되는 소재
시적 화자	(6월령) 버랑에 버린 빗 (10월령) 잘게 썬 보리수나무 (12월령) 소반 위의 젓가락 →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정월령) 넷물 → 화자와 달리 녹아 흐름.
임	(2월령) 등불 (3월령) 진달래꽃 → 임의 아름다운 모습	(4월령) 피꼬리 → 임과 달리 잊지 않고 찾아옴.

※ 두,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주제: 죽지랑에 대한 사모와 추모의 정
- 해제: 이 작품은 화랑 죽지랑의 남도였던 득모가 지은 8구체 향가로, 죽지랑이 죽자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아름다운 죽지랑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 주름살이 생겼다는 표현을 통해 인생무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 구성
 - [1~2구]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함.
 - [3~4구] 죽지랑의 생전의 모습을 회상함.
 - [5~6구] 죽지랑과 만나기를 기원함.
 - [7~8구] 죽지랑과의 만남을 기원함

※ 작자 미상, <동(動動)>

- 주제: 임에 대한 송추와 고독의 비애
- 해제: 이 작품은 현존하는 우리 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달거리 노래로,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 고려속요이다. 분장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속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 주며 임에 대한 송추와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 그리움 등이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 구성
 - [정월령]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
 - [이월령] 임의 인물에 대한 찬양
 - [삼월령] 임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
 - [사월령]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 [오월령] 임의 장수에 대한 기원
 - [유월령]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비관
 - [칠월령] 임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염원
 - [팔월령] 임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